

투데이 칼럼

낙시찌에 얼비친 아버지의 영혼

낙시는 모든 연령대에서 즐기는 오락이자 전 세계 수 천만 명이 즐기는 스포츠다. 처음 식량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낙시가 오늘날 취미 및 스포츠가 되기까지 국가·문화별로 다양한 특징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낙시는 집중력을 길러주는 교훈을 준다. 그것은 곧 기다림, 즉 인내이다. 낙시는 참고 견디고 기다림이다. 미끼를 물에 던지고 찌를 응시하면서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 낙시다. 고기가 입질을 하지 않는다고 부릴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

낙시의 묘미는 손맛에 있다. 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 낙시대로부터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진동, 그 짜릿함을 말로 어찌 다 표현하랴. 그것은 경험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내 남편은 낙시가 취미다. 때론 광적이다 싶을 정도로 낙시를 좋아한다. 그렇다고 생업을 팽개치거나 집안일을 등한시하면서까지 낙시에 몰입하지는 않는다. 본업에 충실하면서 가끔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에는 한적한 저수지를 찾아 낙시를 한다.

간혹 남편 낙시장에 나도 따라나설 때가 있다. 봄이면 낙시하는 남편 옆에서 책을 보기도 하고, 낙시터 인근에서 쉼이며, 밤이 올 땐 더운 물이 흐르면 알록달록 물든 단풍을 구경하며 시상에 찾기도 한다. 고기도 잡고 나물도 캐고 구경도 하고 그야말로 일석삼조다.

작년 이른 봄, 남편과 친정 부모님 이랑 넷이 시 외곽으로 낙시를 갔다. 매년 봄이면 두세 번은 연례행사처럼 남편과 부모님이랑 낙시를

가곤 한다.

그날도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배낭에서 낙시 도구를 꺼내 미끼를 꿰어 낙시에 물입한다. 친정아버지도 남편 옆에서 낙시대를 드리우며 차분히 물을 바라본다. 낙시하는 남편과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엄마와 나는 밤이와 쉼을 깨며 도란거렸다.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쉼은 제 몸에 칼을 갖다 대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햇살 좋은 봄날 부드러운 온기를 안고 밤이와 쉼을 쫓는 때는 자연과 한 몸이 된다. 싱그런 초록과 어우러지는 힐링 여행이 된다. 나는 자연 속에 있고, 봄바람은 내 몸을 감싸 안는다.

이렇게 한 시간 남짓 나물을 캐다가 낙시하는 남편 곁으로 갔다. 남편은 그간 몇 마리의 붕어를 잡아 사지를 하얗게 버리고 있다. 붕어들은 간간히 들어오는 입질 외에는 쉼 미끼를 물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남편의 낙시찌가 울적하면서 물속으로 순식간에 가라앉는다. 이때다 싶어 남편은 힘껏 낙시대를 낙어했다. 순간 쫘악한 붕어가 낙시바늘에 꿰어 공중으로 치

박미혜  
시인·한국신문학협회 사무차장



솟다가 그만 빠져버렸다. 허탈한 순간이었다.

“아, 이런! 아이고 아쉽다. 큰 거였는데...” 친정아버지는 무릎을 치면서 무척 아깝다는 말씀을 연거푸 하신다. 엄마와 나는 또 잡으면 된다며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잡았다 놓친 고기를 놓고 육신각신하던 그때 낙시찌 주변으로 큰 붕어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한다.

“자네, 방금 큰 거 지나가는 거 보았는가!” 아버지가 남편한테 말을 건네자 남편은 몇쪽은 웃음을 입가에 띄우며 물만 바라본다.

지난 가을, 어느 날 부모님은 밤에서 마늘을 심고 귀가 좋았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는 어머니도 타고 있었다. 그런데 집 앞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오토바이가 갑자기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아버지와 엄마는 얼굴이며, 가슴, 목,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갔다. 놀란 마음으로 급히 병원에 달려가니 아버지와 엄마는 응급 처치가 끝나고 누워계셨다. 그 모습을 보니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

째,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몸이 회복된 아버지는 식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하고 말았다. 나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며 닭도리탕을 만들어 아버지께 갖다 드렸지만 아버지는 입맛이 없으신지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았다.

아버지가 퇴원하고 한 달도 채 안됐을 어느 날, 아버지 건강이 열려져서 먹을 것을 장만하여 아버지 집을 찾았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순간 혼비백산으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지는 침대에 반듯이 누운 채로 그만 돌아가신 것이다.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게 분명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으로 우리 가족은 현재 보험회사와 소송 중에 있지만 어머니는 지금도 병원에 입원 중이다. 사고를 낸 트럭 기사는 문병은 커녕 지금까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

지난 일요일 남편과 가까운 방죽으로 낙시를 갔다. 우리는 낙시에 미끼를 달아 물에 던져놓고 하얗게 이 쉼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이 낙시찌에 얼비친다. 아버지가 바로 이 포인트에서 낙시를 하셨는데, 그만 아버지를 생각하니 울컥거리 눈물이 핑 돈다. 살아가실 때 잘해드리지 못한 점이 한이 되어 죄송하다. 퇴원 후 당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뱃속속 하나 제대로 못 드시고 떠나시다니, 오늘따라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다.

곧 출간될 내 시집, ‘꽃잎에 편지를 쓰다’를 아버지의 영전에 바친다.

사설

광복절 특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임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일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실 효력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복권으로 이런 괴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등 재직시절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및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경찰청 정보·보안국장 등 고위 간부들도 복권됐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여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 대상자 총 41만7천28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어느 국립대 총장의 구속

국기기관을 속여 국가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로 수사 중인 국립대 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국립대 총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학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연 어떤 혐의로 현직 총장이 구속수사를 받게 됐는지 어수선한 분위기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총장은 지난 9일 오전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날 밤 늦게 영장을 발부했고, 총장은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총장은 2018년 해상풍력연구원 시절, 272억짜리 국가해상풍력 R&D과제를 따내며 대학과 지역 사회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연구는 4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 없이 중단됐다. 당초 핵심 부품인 수백짜리 터빈을 대기업

으로부터 기증받기로 했다가 사업을 따냈지만 실질적 효과가 없는 MOU 서류 한 장이 전부였다.

4년 차까지도 터빈을 확보하지 못하고, 미리 제작한 풍력발전타워와 하부구조물은 아직까지도 기항 없이 보관되는 신세가 됐다. 연구가 좌초해가는 상황에서 총장과 연구원은 규정을 위반하며 100억 넘는 고급 회식 등에 연구비를 지출했고, 회계규정 위반으로 지원기관의 특별평가를 받았다.

뒤늦게 부름 확보가 불발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과제는 즉시 중단됐다. 문제는 앞으로 대학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총장이 연구원장 시절 중복계약을 맺거나 비용 대납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소송을 대학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 관련 소송만 5건이다. 금액은 28억 원에 이르는데 이미 들어왔거나, 물어줘야 할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다.

독자제언

온라인 게임·SNS 이용자들의 온라인 상 욕설 주의보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가 고소당하는 10~20대 남성이 늘고 있다고 한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고소를 발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전문꾼’이 등장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매체이용윤리법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8004건에 달했다. 2019년(1437

건)과 비교하여 4년 새 다섯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입건된 사건은 2020년 2047건, 2021년 5067건, 2022년 1만563건 등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윤리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 성립된다. 사건 중 상당수가 LoL(League of

Legend,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고소당한 10대 이상 젊은 남성으로서 최근 3~4년 새 게임과 SNS에서 성적 혐오 표현을 했다가 신고당하는 청소년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협동 대결 게임을 일부러 엉망으로 만들어 상대를 자극해 성적인 욕설을 끌어낸다고 한다. 이런 꼴들은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고소장

을 제출하는 사진을 보내고, 200만~300만원의 합의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SNS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욕설을 내뱉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도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범죄예방교실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해 공갈·협박당하는 청소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태철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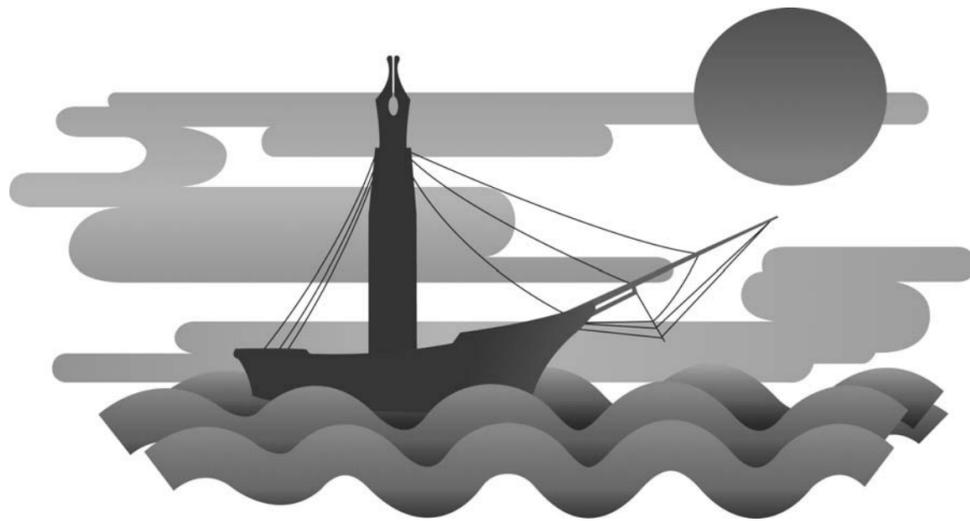
(우)560-912 전북 전주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